

나눔식
소그룹
10월
셋째주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새 438, Ab→G)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경배와 찬양, G)

Focus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욥기 7:11~21

마음 열기 인도자를 위한 예화

영국 작가 프랜시스 톰슨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며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신부나 의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는 젊은 날 마약에 빠져 런던의 빈민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을 사냥개처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을 따돌릴 수 없었고,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천국의 사냥개'라는 기념비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의 시를 묵상하다 보면 자기 백성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로 찾아가셨으며, 절망하고 탄식 가운데 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어서 썩어 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추적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처와 절망과 죽음의 냄새를 맡고 쉽 없이 목표물을 향해 달리는 사냥개처럼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추적하셨고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로..."(프랜시스 톰슨 '천국의 사냥개' 중에서).

내 인생을 감찰하시며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나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 욥기 7:11~21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7장은 '나를 지키시나이까'(12절),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13절), '나를 놓으소서'(14절),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17절),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19절),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소서'(20절)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감찰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나차르'(rc:n)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백성을 향한 긍휼을 나타내는 긍정적 문맥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고통의 굴레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신을 감독하고 감시하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극심한 고난 때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감시'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들은 아기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잡고 있던 손을 놓아 줍니다. 아기는 처음에 불안해하지만 곧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부모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감찰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욥의 믿음을 더욱 연단해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깊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절망하게 하고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욥의 탄식은 하나님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자를 마음에 두시고, 구원의 과녁으로 향하게 하시며, 꿈을 통해 소망을 주시며, 눈동차처럼 감찰하시며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① 욥은 자신이 당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나요?(15절)

-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신 시련으로 인해 잠조차 잘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14절). 그리고 결국에는 더 살고 싶지 않다고 토로합니다(15절). 그는 ‘뼈’라는 단어로 그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뼈’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츰’에는 ‘존재’, ‘자아’, ‘삶’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뼈에는 골수가 흐르는데 그곳에서 피가 생성되며,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뼈를 깎는 고통’은 생명의 존재가 사라지고 삶이 끊어지는 ‘죽음의 고통’을 대변합니다. 한편, ‘숨 막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마하나크’는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교살당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이 표현은 불행한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욥의 의지를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죽음에 대한 욥의 묵상은 16절에서 더 강렬해집니다. ‘싫어하고’의 원어적 의미는 ‘거절하다’, ‘경멸하다’, ‘내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다’란 뜻입니다. 이어지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란 표현은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토로하며 죽음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냅니다. 결국 욥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를 놓으소서’라며 극단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탄원을 통해 그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 얼마나 낙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극단에 내몰리면 죽음을 묵상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① 삶에서 경험한 극심한 고난을 돌아보며, 당시에 나는 어떤 고백을 했는지 나누어 보세요.

-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아주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11절). 욥의 고백은 불평과 원망을 넘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의 권세는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결국 죄의 결과인 사망을 선포하게 합니다. 욥이 불평하다 못해 죽음을 선포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에는 ‘나’라는 말이 27회 등장하며, 7장 전체에서는 39회나 사용됩니다. 아무리 욥이 의인이라 해도 자아가 살아나는 순간 죄의 본성을 절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참된 믿음의 자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죽이고 ‘주’를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②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그분께 호소했나요? 그 호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20절)

- 욥은 하나님을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라고 부르며 호소했습니다. 욥은 이를 부정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 호칭에는 자신을 끊임없이 감독하시고 감시하시는 분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20절). 성경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보통 긍정적 문맥에 사용됩니다. 이 호칭을 통해 모세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으며(신 32:10), 다윗은 악인의 음모에서 숨겨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시 64:2). 그러나 욥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감독하시고 감시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화살의 과녁으로 삼으셨다고 호소합니다(20절). ‘과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프가’([G]p.mi)는 ‘방패’, ‘표적’, ‘장아물’, ‘걸림돌’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궁사가 과녁을 향해 활을 쏘며 군사들이 적진에 도달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듯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시는 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21절에서 자신처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절대자인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고 고난을 내리시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의 항변 속에는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한 자신을 감찰하셔서 속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간절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❷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원인이 내 죄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커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실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성실히 감찰하시며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죄와 상관없이 임하는 고난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거나 시험하시기 위한 선한 목적 때문입니다. 따라서 극심한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욕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42:5).

말씀 다지기 |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죽음을 목상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그 고난을 끝낼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 불렸던 욕도 극심한 고난 앞에서 죽기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에는 자신을 구원할 이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죽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리더는 오늘 나눔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어떠한 고난이 와도 생명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도록

말씀으로 기도하기 |

제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하소서. 순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1.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섬기는 봉사 활동(호스피스)에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님 안에 있는 위안과 천국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아프리카 가봉에서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지만, 정령을 숭배하거나 주술적인 것에 미혹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이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도록 기도합니다.